

팔복예술공장, 청소년 예술학교 된다

야호학교 청소년, 팔복예술공장 입주 예술가와 팀 이뤄 예술창작 활동

전주산업단지에서 들어선 팔복예술공장이 전주 청소년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예술학교가 된다. 예술창작공간과 예술교육공간 등을 갖춘 팔복예술공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주 시민들을 먹여 살린 전주산업단지 내 폐공장 부지에 전주 시민들을 위한 예술놀이터로 조성됐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와 전주 문화플랫폼 팔복예술공장의 협업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예술프로젝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예술에 꿈과 소질이 있지만 부모님 반대 등의 이유로 현실에 순응하며 좌절된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아 비상할 기회를 주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야호학교와 팔복예술공장 운영을 맡은 전주문화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조율했으며, 최근 전북교육청과 참여자 모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최종 결정돼 협업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술프로젝트는 오는 5~6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방학중(7~8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하반기(9~11월)부터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13세에서 18세 청소년 20명이며, 팔복예술공장 입주 예술가와 팀을 이루어 예술창작 활동을 진

행한다. 프로젝트 내용과 진행방법 등은 청소년과 예술가 협의로 계획·실행되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성과물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된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전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전주만의 독창적인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통해 이번 예술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정한 예술적 소질을 발견하고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전북 평생학습도시 순회 회의 개최

전주시는 20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전북지역 9개 평생학습도시와 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학습도시 순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주시를 비롯해 진안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 등 9개 평생학습도시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별 평생교육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비롯한 공동사업 추진 등 내실 있는 협의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과 화합은 도시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타 평생학습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시는 20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전북지역 9개 평생학습도시와 전북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학습도시 순회 회의를 개최했다.

동전함 상습절도 30대 구속영장

세차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동전함을 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절도 등의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37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유소 셀프세차기를 부수고 동전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익산 일대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주유소와 세차장 등에 있는 셀프세차기 동전함을 노렸다.

경찰은 범행 수법에 비해 여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전주지역 37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참여

시, 시제품 제작·생산공정 개선·마케팅지원·표준화 인증지원 등 4개 분야 지원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생산공정 개선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8년도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이하 성장사다리)'의 수혜기업 3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담

기관으로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R&D 역량강화 시제품제작지원 △생산기반 공정개선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지원 △표준화인증지원 등 4개 분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성장사다리 선정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翼(이)업종 융합산업 포럼'도 연간 4회 정도 진행되며, 오는 10월에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성장사다리기업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제품박람회 열어 기업간 교류와 제품홍보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했으며, 4개 분야에 걸쳐 총 55개 기업이 지원하여 이 중 37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한편, 지난해 성장사다리 참여기업 중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수출이 발생한 기업은 총 9개 기업으로, 수출금액은 87만 달러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반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하는 입사서류'

삼천도서관 '취업다독, 용기 북독프로그램' 두 번째 강의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은 20일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신중년 내일 더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취업다독, 용기 북독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삼천도서관 신중년 내일 더하기 프로젝트는 신중년 세대가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6회기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강의에는 김인수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하는 입사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퇴직준비자들이 미리 알아야 할 사항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 참석자 스

스로 본인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향후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한 수강생은 "우리 세대를 위한 맞춤 강의를 통해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고, 나머지 강의도 꼭 들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천도서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꿈과 사람이 머무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삼천도서관 전화(063-281-6465) 또는 직접 방문접수하면 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기동취재반

전주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신청 접수

전주시, 30일까지

전주시가 전주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업소를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향토전통음식업소에 대한 지정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중 한정식과 비빔밥, 콩나물국밥, 불술밥, 오모거리탕, 전주백반, 페백음식의 향토전통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고,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 따른 기능보유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종사하는 업소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 향토음식으

로 추가 지정된 오모거리탕과 전주백반, 페백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를 포함한 향토전통음식업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음식과 서비스, 위생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항목별 득점비율이 60%이상이면 각 심사자별 평균득점이 8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주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되며,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업소 홍보 등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성교육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일 초등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 성교육을 실시했다.

'우리 아이의 소중한 건강한 성(性)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플러스 사업 중 '좋은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가 성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맞

게 대응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교육 내용은 △발달단계에 맞는 유아, 초등자녀 성 △자녀들의 2차 성장 △몸과 마음의 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간 부모와 함께 참여한 다문화가족 자녀 20여명을 대상으로는 라이스플레이 딱케이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기동취재반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